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WSJ: 미 12월 인플레이 6.5%로 낮아져... 6개월 연속 하락
- Bloomberg: 물가 발표 직후 필라은행총재, “향후에 0.25%씩 금리 올려야”
- WSJ: 금년초 미 실업수당 신청건수 소폭 하락

#### [미국 생활]

- WSJ: 연방정부, 가정용 가스스토브 사용 금지하지 않을 듯

#### [미국 금융]

- WSJ: 시장 전문가들, 소비자 물가지수 보다 ‘슈퍼코어’ 인플레이에 초점
- Bloomberg: 금융시장, 연준의 ‘No 금리 인하’ 입장 거부한다

#### [에너지]

- CNBC: 국제에너지기구, “클린에너지 크게 성장한다”

####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올해 글로벌 경제는 흔들린다
- Bloomberg: 중국 생산자물가지수 예상폭보다 하락... 감염 여파 탓
- WSJ: 코로나 규제 풀리자 중국 물가 오른다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CEO들, “미국 경기 침체 오지만 짧게 끝날 것”
- Tech Crunch: Nvidia, 소매업계 도난 방지하는 새 AI 워크플로우 공개
- CNN Business: 자동차 판매 감소하지만 수익은 급증... ‘뉴 노멀 시대’
- Bloomberg: 전기차 시장, 올해 판매 성장세 둔화에 대비한다
- WSJ: 5G 실망감, 당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 Bloomberg: TCMC, 단기 매출 하락 상쇄하려 지출 축소 계획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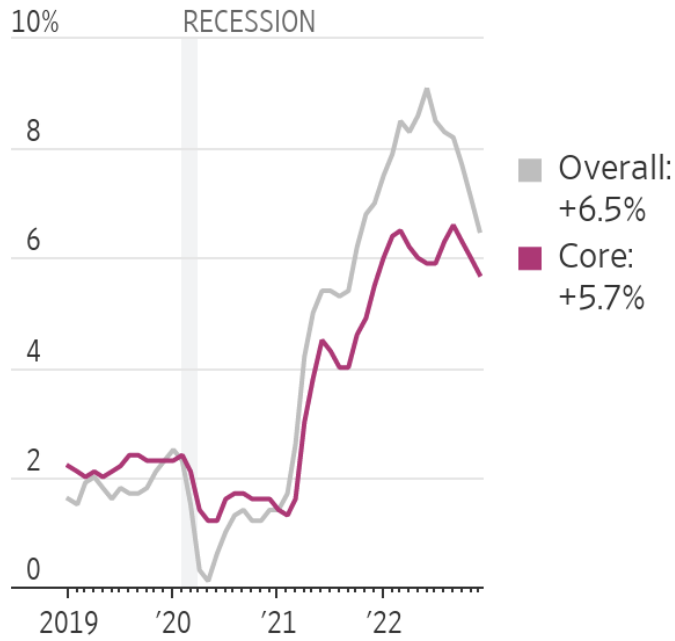
#### WSJ: U.S. Inflation Slowed for Sixth Straight Month in December

#### 미 12월 인플레이 6.5%로 낮아져... 6개월 연속 하락

- 작년 12월 인플레이가 그 전년도 동월 대비 6.5%로 둔화했다. 작년 중반 고점에서 6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제품과 서비스에 지출하는 소비자 가격 지수는 2021년 10월 이래 가장 천천히 올랐다. 12월 연간 인플레이는 작년 6월엔 9.1%로 최고치를 기록한후 11월 7.1%, 작년 12월에는 6.5%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21년 10월 6.2% 이후 가장 낮은 연 인플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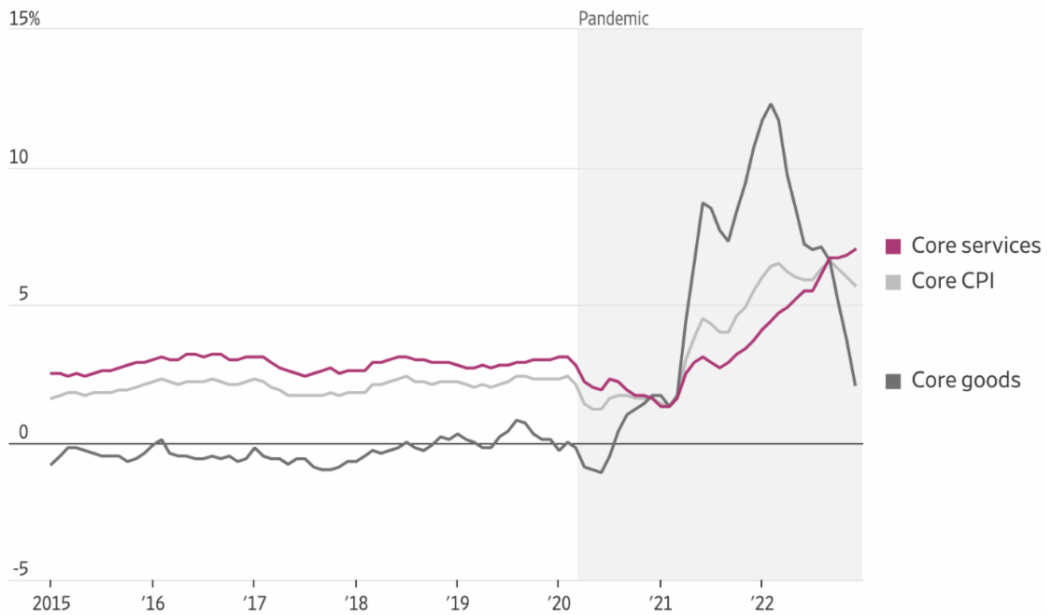
- 핵심 CPI는 12월 5.7%로 전월인 11월 6%에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향후 인플레이션 신호로 핵심 CPI를 선호하고 있다.

### Consumer-price index, change from a year earlier



Source: Labor Department

### Core services and goods prices, change from a year earlier



Note: Core CPI refers to consumer-price index less food and energy. Core services refers to services less energy services. Core goods excludes food and energy items.  
Source: Labor Department

WSJ 기사

## Bloomberg: Fed's Harker Supports Smaller, 25-Basis-Point Hikes 'Going Forward'

### 필라연방은행총재, “향후에 0.25%씩 금리 올려야”

- 연준이 수십년만에 가장 공격적인 금융긴축 정책을 펼치는 끝자락이 다가 오면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Patrick Harker 총재는 “올해 몇차례 금리를 올릴 예정이지만, 예전과 같이 한번에 0.75%씩의 큰 폭이 아닌 0.25%씩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직후에 그는 베이비스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올리는 폭을 0.25%씩 하자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것.
- 한편 지난달 발표된 예측에 따르면 연준 관리들은 올해 금리 총 인상폭이 5%를 넘고 2024년까지 계속 그 폭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 WSJ: U.S. Jobless Claims Edge Down in First Week of Year 금년초 미 실업수당 신청건수 낮아졌다

- 한마디로 해고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여전히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말해주고 있다.
- 연방노동부의 오늘 수요일 자료에 따르면 해고를 대략 측정할 수 있는 미 신규 주관 실업청구건수는 지난주에 1천건이 줄어든 20만5천건이다. 이는 지난해 초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 보다 큰 수치이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한 수치다.
- 4주 평균치는 21만2천5백건으로 1천7백50건 줄었다. 팬데믹 전인 2019년 4주 평균치는 22만건이었다.

WSJ 기사

### [미국 생활]

## WSJ: Gas Stoves Don't Face Ban From Biden Administration 연방정부, 가정용 가스스토브 사용 금지하지 않을 듯

- 미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위원장은 연방 정부가 가정에서 가스스토브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스스토브 사용을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 이같은 발표는 가정에서 가스스토브 대신에 전기방식 요리로 전환하도록 강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가스스토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실내 공기 질을 저하시키고 건강을 해롭게 하다는 것이다.
- 이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은 언론이 건강 문제로 가정의 가스스토브 사용 금지를 연방정부에서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WSJ 기사

### [미국 금융]

#### **WSJ: Forget Core CPI, Market Pros Are Searching for Supercore Inflation** 시장 전문가들, 소비자 물가지수 보다 '슈퍼코어' 인플레이에 초점

- 시장 전문가들은 보다 정확한 인플레이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전반적인 소비자물가지수 보다는 서비스 인플레이와 노동시장 데이터에 더 주목하고 있다.
- 현재 서비스 가격은 급등하고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정책 결정자들과 시장 참가자들은 핵심 인플레이를 파악하기 위해 가격지수의 변동성이 있는 요소들은 무시한다. 오늘 발표된 물가지수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의 장기적인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의 월간 변동 추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 핵심 상품 인플레이는 지난 수개월간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서비스 인플레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 시장이 여전히 뜨겁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고 있다. 노동 시장 수치에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WSJ 기사

#### **Bloomberg: Fed's No-Rate-Cut Mantra Rejected by Markets Seeing Recession** 금융시장, 연준의 'No 금리 인하' 입장 거부한다

- 연준은 금년말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투자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애를 쓰는 모양새다. 금리가 5% 이상 상회하고 올해 내내 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이런 노력이 작동하지 않는다. 머니 마켓은 금리가 4.9%에서 고점을 찍은 다음에 올해 말까지 0.5%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투자자들의 이같은 반응은 한마디로 "미국이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는데 연준은 아직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Bloomberg 기사

## [에너지]

**CNBC: IEA says clean energy manufacturing set for  
국제에너지기구, “클린에너지 크게 성장한다”**

- 이 기구에 따르면 세계가 점차 클린 기술 생산의 새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수천억달러의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2030년까지 매년 6천5백달러 가치가 된다는 것. 클린 기술 생산은 터빈, 열펌프,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솔라 패널, 수소 전해조(electrolyzers for hydrogen) 등이다.
- 특히 중국이 가장 청정에너지 기술의 생산과 교역을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 기구는 그러나 지정학적 갈등과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문제등이 잠재적인 역풍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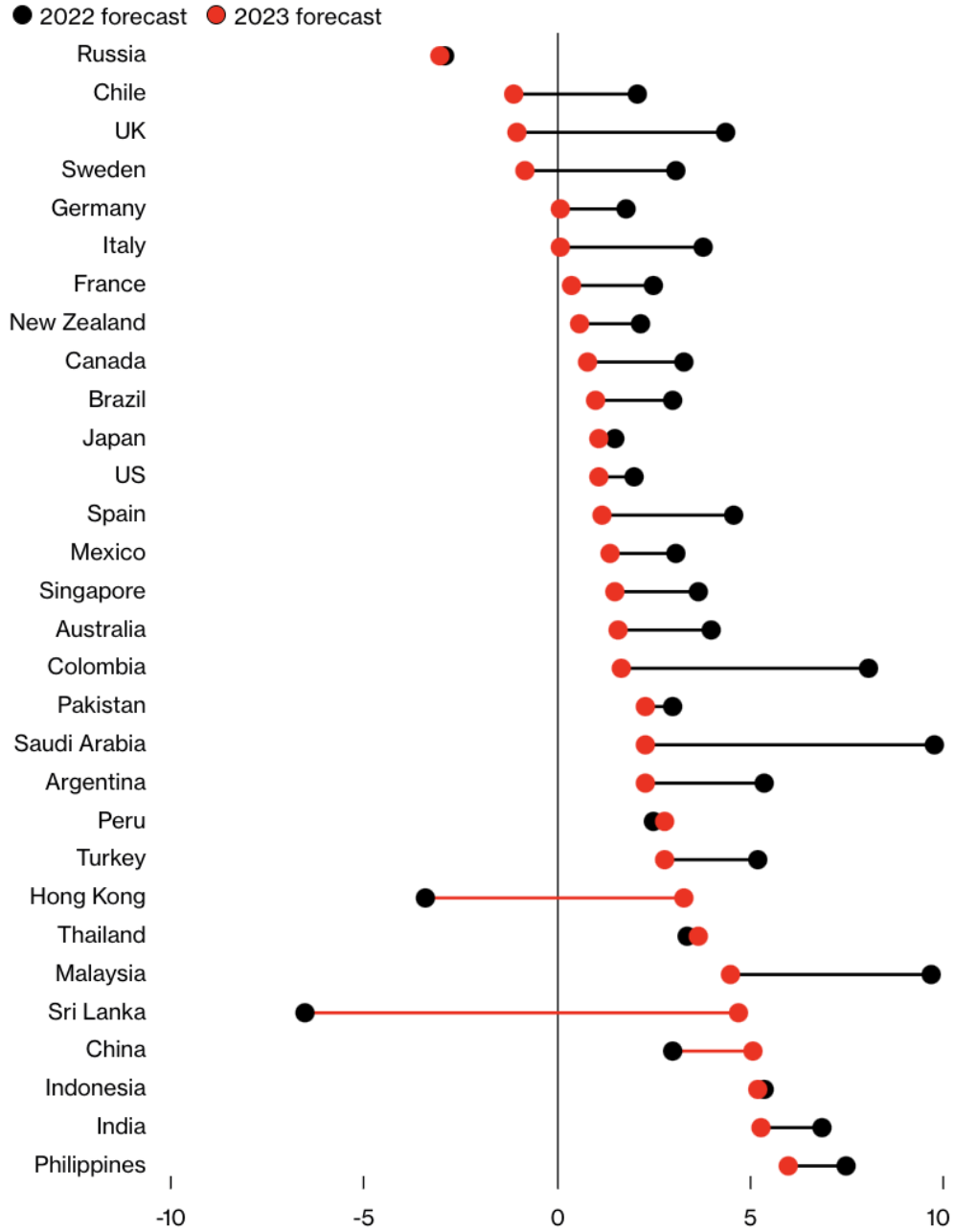
CNBC 기사

## [글로벌 경제]

**Bloomberg: The Global Economy of 2023 Is Going to Be a Wild Ride  
올해 글로벌 경제는 흔들린다**

- 지난 30년동안 값싼 노동력, 낮은 에너지 가격, 저금리 등 글로벌 성장을 떠받친 기둥들은 허물러지고 있다.
- 그 대신 전세계는 1) 인플레이션 2)노동력 부족 현상 3)지정학적 불안 등에 대처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 노동력 부족 현상은 미국, 유럽, 영국 등에서 확실히 발생하는 현상인데다 오일가는 지난 2020년 이후 3배 이상 상승했다. 에너지 글로벌 비용은 작년만해도 5% 상승했다.
- 여기다 주요국가인 러시아 경제에 전쟁 선포를 한 셈이고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한 제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90개 이상의 중앙은행들이 2022년 봄과 여름에 금리를 인상했으며, 그 중 적어도 절반은 단번에 0.3% 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업, 소비자 및 정부의 장기 차입 비용은 악영향을 받았다.

### Annual GDP Growth



Source: Bloomberg Economics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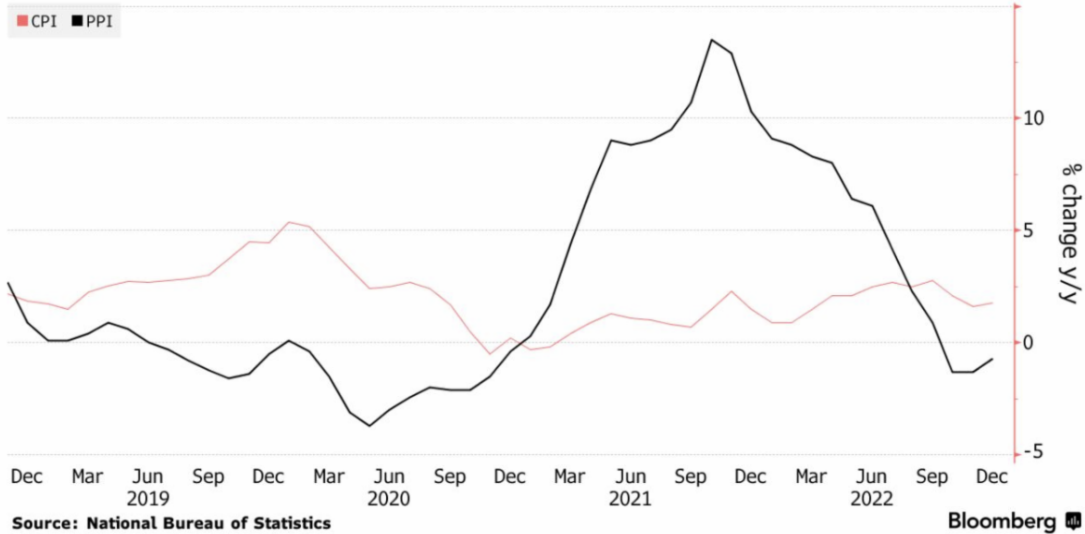
### Bloomberg: China Factory Deflation Ebbs Despite Disruption Caused by Covid

#### 중국 생산자물가지수 예상폭보다 하락... 감염 여파 탓

- 중국 통계국이 오늘 목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도 동월에 비해 0.7% 하락했다. 예상치 0.1% 하락폭보다 크게 떨어졌다. 11월의 하락폭은 1.3%.

- 예상보다 생산자물가지수가 떨어진 것은 12월에 감염 여파가 산업 수요에 여파를 주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소비자 인플레이션은 11월 1.6% 올랐으나 12월에는 1.8%로 상승했다. 핵심물가지수는 0.7%로 약간 상승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이같은 안정세는 시장의 공급을 안정시키고 물가 안정을 꾀하려는 각종 조치 탓으로 알려졌다.

**Higher Consumer Inflation**  
**China's factory gate deflation narrowed in December**



Bloomberg 기사

**WSJ: China Inflation Picks Up as Covid-19 Restrictions Fall**  
**코로나 규제 풀리자 중국 물가 오른다**

- 중국 정부가 코로나 19 억제 정책을 해제한 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다시 오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이번주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12월 중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해 11월의 1.6%보다 빨랐다.
- 관건은 중국의 재개방이 세계 물가에 어느 정도의 압박을 가할 것인가에 있다.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특히 에너지 가격을 높이게 된다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지속되고 중앙 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 한편 미국과 유로존에서는 인플레이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준 관계자들은 2023년 최대 5.5%까지 금리를 인상하고 2024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호를 보내왔다.
- 중국의 경제개발 및 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기획실장은 세계 물가의 변동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올해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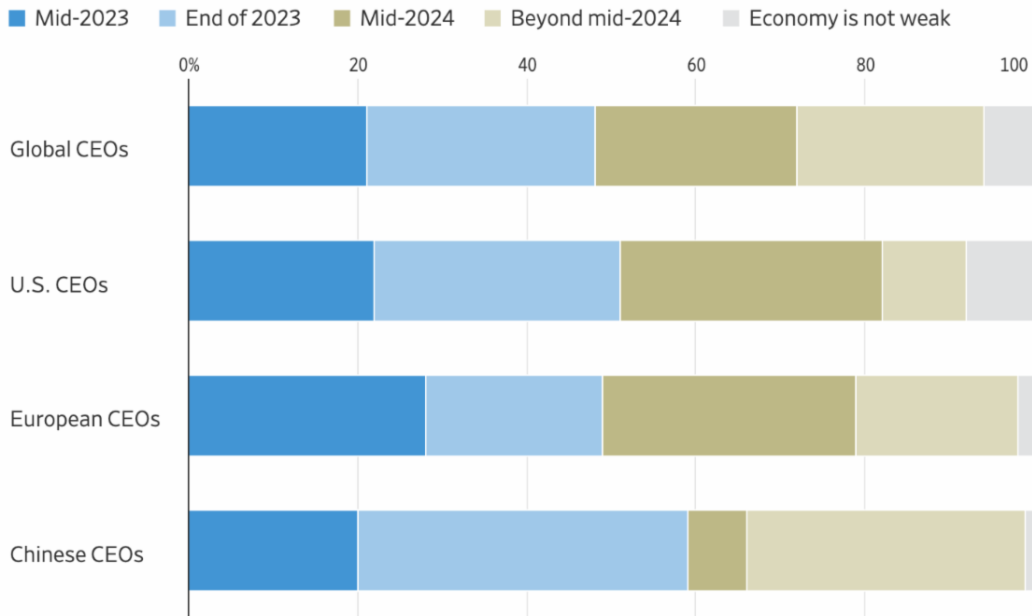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CEOs Say They Expect a U.S. Recession, but Most Think It Will Be Short  
CEO들, “미국 경기 침체 오지만 짧게 끝날 것”

- Conference Board가 1천명 이상의 글로벌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기업 임원들이 2023년 말이나 2024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끝나고 성장세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 미국 CEO의 98%는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나, 짧고 약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광범위한 감원보다는 핵심 산업 라인을 지키고 가격 전략으로 마진을 확보하거나 행정 및 비필수 재량 지출을 줄이고 자본 투자를 연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기 둔화를 대비하는 경향을 보였다.
- 한편 미국 응답자들의 가장 큰 외부 관심사는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노동력 부족이었다. 공급망 혼란이나 코로나에 대한 우려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When CEOs expect economic growth (GDP) to improve by region



Note: Percentages may not equal 100% due to rounding.  
Source: The Conference Board survey of 670 global CEOs conducted mid-November to mid-December 2022.

WSJ 기사

TechCrunch: Nvidia unveils new AI workflows to help the retail industry with loss prevention



## Nvidia, 소매업계 도난 방지하는 새 AI 워크플로우 공개

- Target이 2022년 조직적인 절도로 수십만 달러의 수익 손실을 입는 등 최근 소매업계는 늘어나는 절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 소매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난, 손상 등으로 인한 “Shrinkage” 손실은 1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65%가 절도 때문이었다.
- 이에 Nvidia가 NVIDIA AI Enterprise 소프트웨어 제품군의 일부로 세 가지 새로운 AI 워크플로우를 발표했다. 이 워크플로우는 도난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응용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한다.
- 세 가지 워크플로우에는 소매 도난 방지 AI 워크플로우(가장 많이 도난된 제품의 수백 가지 이미지를 AI가 학습), 다중 카메라 추적 AI 워크플로우(매장 안의 모든 객체를 카메라로 추적), 소매점 분석 워크플로우(컴퓨터 비전을 사용해 고객 동선이나 트래픽 등 분석 데이터 제공)가 있다.

TechCrunch 기사

## CNN Busines: Auto sales are falling — but profits are surging. Welcome to the new normal

### 자동차 판매 감소하지만 수익은 급증... '뉴 노멀 시대'

- 높은 금리, 낮은 재고, 공급망 문제, 반도체 칩 부족으로 공급이 소비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며 2022년 미국 자동차 산업은 10년 만에 최악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 나쁜 소식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자동차 업계는 판매가 급감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올렸다. 미국 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2022년 3분기까지 3백20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이다. 자동차 대리점들도 기록적인 수익을 만들어냈다.
- 이는 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의 억눌린 수요에 따라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방 노동부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2019년보다 자동차에 약 20%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이런 추세는 내년까지 지속되며 자동차 업계에 강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시장은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고, 이윤이 커지는 뉴 노멀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 Bloomberg: Electric Vehicles Look Poised for Slower Sales Growth This Year

### 전기차 시장, 올해 판매 성장세 둔화에 대비한다

- BloombergNEF가 2023년도 EV시장에 대해 세 가지 포인트를 전망했다.

- 전기차 판매 사상 최대치 경신, 하지만 성장 속도는 둔화: EV의 판매는 2023년에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 2년보다 성장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다시 EV 시장을 장악하고, 미국과 유럽의 격차도 줄어든다. 연말까지 전 세계에 운행되는 전기 자동차는 4천만대를 넘어 전체 차량의 3%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 주류에 가까워지는 전기 상용차: 전기 트럭과 밴 등 상용차 분야의 판매가 2022년 대비 80% 이상 늘어나며 202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6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상용차는 승용차보다 사용량이 많아 석유 사용량과 배기 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중국이 시장 선두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한국의 시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 EV 충전소는 여전히 성장통: 전 세계 공공 EV 충전소는 2022년 1백만 대, 2023년에는 1백 30만대가 설치되며 누적 4백1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성장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 WSJ: It's Not Just You: 5G Is a Big Letdown 5G 실망감, 당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 2022년 미국 셀룰러 고객의 61%가 5G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은 더 높아진 요금이나 더 빨리 방전되는 배터리 외에 4G와의 차이점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아래의 5G 특성을 이해한다면 향후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저대역 5G: 속도가 4G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느리며, 5G로 표시되지만 종종 4G 처럼 느껴지는 이유이다.
- 중대역 5G: 상대적으로 먼 거리, 실내와 실내에서 잘 작동하면서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통신사마다 "5GUC", "5GUW", "5G+"로 표시되는 상태.
- 광대역 5G: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해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하지만 신호가 벽을 잘 통과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 한편 통근 시간이나 혼잡한 장소에서 5G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홈 네트워크 사용 시 더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WSJ 기사

### Bloomberg: Chip Giant TSMC Plans to Cut Spending to Offset Falling Near-Term Sales TCMC, 단기 매출 하락 상쇄하려 지출 축소 계획

- 대만의 거대 반도체 대기업 TCMC가 2022년 363억 달러에서 올해 320~360억 달러로 지출 축소를 계획하며 예상보다 낮은 매출에 대비하고 있어 테크 산업의 부진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TCMC는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스마트폰 및 PC 수요 감소, 지정학적 긴장감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TCMC의 1분기 매출은 167~175억 달러로 분석가들의 평균 예상치 179억 달러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상반기 매출이 감소하고 하반기 회복되어 2023년 소폭 성장을 전망했다.
- 하지만 TCMC의 총 마진은 환율과 비용 절감 노력에 힘입어 작년 분기 52.7%에서 62.2%로 크게 늘었다. 또 반도체의 장기적인 추세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 美 소비자물가지수 12월 6.5%↑...14개월만에 최소폭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6.5% 올랐다.

전년 대비로 5개월 연속 CPI가 감소한 것이다. 또한 6.5% 상승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소폭이다.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았던 CPI 상승률은 10월 7.7%로 둔화한 데 이어 12월에는 6%대 중반으로 내려온 것이다.

특히 12월 CPI는 전월 대비로도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